

욥의 위대한 부활 신앙

성경말씀: 욥19:21-29

욥과 친구들의 2차 논쟁, 복음의 관점, 엘리바스 여전히 동일한 것 주장, 욥도 마찬가지: 나는 무죄하다.

“꼭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하는 것 아니다.” 욥은 죽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무죄, 종교인들의 핍박 고통, 죽음,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

드디어 오늘은 부활 이야기, <욥의 확고한 부활 신앙>

빌닷의 공격(18)

일이 안 풀리자 빌닷은 욥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에게도 화를 냄(2-3)

이번에도 빌닷은 같은 것 반복: 1. 하나님은 공의롭다. 2. 죄인 심판, 의인 축복, 3. 욥의 고난,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4.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 축복

욥 비난: 자기들을 짐승처럼 여긴다(3), 하나님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시겠느냐?(4)

설득으로 안 되니 빌닷은 죽음의 공포를 도입함(5-21), 먼저 욥은 사악한 자(5), 그는 죽는다.

1.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5-6). 빛은 곧 생명을 뜻함, “너 이리다가 죽는다.”

2. 네가 다니는 길이 모두 위험하다(7-10). 울무(8), 덧(9), 강도(9), 함정(10)

3. 주변의 두렵게 하는 것들이 위협한다(11-15), 11절, 결국 죽는다(13). 그 결과 그가 확신하던 것들(재물, 자식, 아내, 친구, 건강 등)이 꺾이고 멸망이 결국 그를 공포의 왕에게 데려간다(14).

공포의 왕은 죽음인데 그에게 가서 죽게 되면 생기는 일(15-19)

유황이 뿌려진다(15),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17), 결국 자식도 손자도 다 이별하게 된다(19-20).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20). 이것이 사악한 자의 운명(21)

빌닷의 잘못: 1. 그의 대화 상대는 욥: 그는 지옥 정죄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성도(욥1:1, 8)

2. 모티브가 틀렸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 묘사는 사실

죽음이 인류를 다스림(히2:15,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갇힘), 가장 무서운 원수(고전 15:26), 예수님의 말씀(마10:28),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음 극복 가능(요5:24)

그리스도인의 죽음. 1. 아버지께 가는 것(요14:1-6), 땅에서 잠들어 하늘에서 깨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결론 및 확신: 빌닷의 말은 절대로 성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욥의 대답(19:1-12)

빌닷의 죽음의 공포 위협, 죽는다. 그러자 욥은 죽기 전에 이미 나는 그런 공포를 다 겪고 있다고 말할

1. 모욕(1-4), 너희는 이미 열 차례나 나를 모욕했다(3).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를 더 준다.

내 죄는 내 죄다(4). 즉 내 죄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할 일이다. 너희가 나를 심판하지 말라

2. 욥의 상태, 1. 덧에 갇힌 짐승(6), 2. 법정 죄수(7), 3. 사방으로 갇힌 여행자(8), 4. 폐위가 된 왕(9), 5. 폐허가 된 건물(10), 6. 뿌리째 뽑힌 나무(10), 7. 포위된 도시(11-12)

욥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19:13-22).

형제들, 지인들(13), 친척들, 친구들(14), 종들도 무시한다(15-16), 아내가 그를 멀리한다(17)

아이들도(18), 사랑하던 이들(19), 그 결과 잇몸만 가지고 도망하였다(20), a. 겨우 살아서 도피하였다.

b. 혹은 죽음 일보 직전이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함(21-22), 나를 핍박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라.

욥이 답답함을 호소함(23-24)

1. 내 말들이 기록되고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23)

죽기 일보 직전, 내 사정을 확실히 남겨야겠다. 빌닷의 말에 대한 반박(18:17)

그 당시의 문화와 기술, 철필로 글을 쓴다. 책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 고대인들은 원시인이라 글을 쓰지 못하였다. 무식하였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욥26:7). 열역학 2법칙, 쇠퇴한다.

컴퓨터, 핸드폰은 지식의 축적된 결과, 지식이 축적된다. 이것이 지혜는 아니다.

이제부터 옴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무엇이 위대한가? 인간이 겪는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 최고의 희망 상태로 갔다가 다시 떨어짐

믿음의 여정이 인생 여정 내내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누구나 고통과 핍박, 좌절을 겪는다. 낙망한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위를 바라본다. 소망이 넘친다.

그리고는 다시 추락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

스펠전, 15세 회심, 22살의 나이에 설교의 황태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12,000명 수용 서리

가든 음악당 렌트, 1856년 10월 19일 그날 10,000명 참석, 저녁 6시경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야”

소리, 아수라장, 7명 사망, 여러 사람 부상

그런데 진짜 불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

그날 그는 의식을 잃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다시 나와 설교하고 그 뒤로 35년을 더 살면서 복음 선포, 1857년 23000명 앞에서

설교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올게 되는 극심한 우울증, 존 파이퍼도 동일한 경험

35세에 통풍으로 인해 극심한 좌절과 우울증,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 22년 재임 기간 중 7년을

설교하지 못함, 그리고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고 결국 57세에 조기 사망

스펠전은 그가 경험하는 우울증의 잠재적 파괴성에 대해서는 우울증은 영혼의 힘을 한 방울씩 소진시켜

사람을 낙심케 만들고 결국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우울증의 어두운

면과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울증과 투쟁했던 루터의 “고통은 내 도서관의 최고의 책이다”라는

말을 종종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더 나아가 “그 고통의 책 중의 최고의 페이지는 가장 어둡고

우리의 영혼이 침몰할 때를 기록한 그 페이지인데 그 이름은 우울증이라는 페이지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스터리, 가장 pessimistic, 가장 optimistic

고통과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옴의 위대함의 고백

옴의 부활 신앙(19:25-28)

이처럼 힘든 절망 속에서 그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소망: 부활

1.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내게 구속자가 계심을 안다. Redeemer, 나의 속박의 상태를 물리 줄 수

있는 분, 구원자가 아니라 구속자, 이미 구원받음, 이 억울한 사정에서 나를 빼내 주실 분

구약 시대의 친족 구속자. 오직 친족만이 빼앗긴 것(종의 속박)을 구속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친족으로 이 땅에 오심. 목숨을 내 주심.

이런 친족 구속자는 또한 속박당한 자를 대신해서 재판 자리에 갈 수 있다.

2. 지금은 안 된다 해도 맨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에 서서 나를 구속하실 것이다.

3. 내 모든 것이 썩어도 그때에 내가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26).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육체 안에서.

4. 내가 본다. 직접 본다. 내 눈이 본다(27).

5. 옴의 소원: 중재인(9:33), 변호자(16:19)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이제 그 변호자가 바로 구속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헨델의 메시아, 킹제임스 성경, 총 3부, 3부 시작 곡(45번째 곡),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당시 그에게는 성경이 없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미미하였다. 그럼에도 확실한 부활 신앙

옴을 조롱하는 세 친구들에게 당당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 친족 구속자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구속자의 조건: 의지가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행해야 한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많은 추수가 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 크리스천의 부활 신앙

옴의 경고(28-29): 너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 앞에서 대답해야 한다.

http://reformednews.co.kr/sub_read.html?uid=3937§ion=sc9